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왼쪽)과 대만 포광산스님(사진 오른쪽)이 양국 불교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에 합의하며 악수하고 있다.

수련법회정보센터 '검색' 인기

조계종 포교원 오픈 1개월 점검 결과

휴가철을 맞이해 조계종 수련법회정보센터(www.ibuddhism.org)를 방문하는 불자들이 늘어났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사이트 개소 한 달째인 7월 25일 "하루 평균 150명이 접속하고 있으며 방문자가 가장 많았던 것은 7월 14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현상은 휴가 기간과 맞물려 사찰 수련법회에서 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검색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수련법회 정보센터는 조계종 포교원이 사찰과 신도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수련법회 정보교류를 위해 지난 6월 23일 인터넷에 개설한 사이트로, 그간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사찰은 수덕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덕사 정보는 총 1,853회 조회됐으며 뒤 이어 월정사(1,825회), 해인사(1,630회), 백양사(1,609회) 순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본 단일 정보로는 월정사 일반인 수련법회가 1,441회로 1위를 차지했다. 백양사 참사람의 향기(1,356회), 수덕사 선(禪) 수련법회(1,148회), 구룡사 여름수련법회(877회)가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 대상 수련법회로는 골굴사, 어린이 대상으로는 법주사 수련법회 정보가 가장 많이 검색됐다.

이른바 기자

금강산에 청소년불심 '메아리'

파라미타 연합캠프 고성·신계사에서 개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7월22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통일기원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원택)가 7월 20~23일 약 1천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제8회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캠프를 열었다. 이번 연합캠프는 고성 알프스 리조트에서 시작해 21, 22일 양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진행됐다. 파라미타는 양일간 참가 청소년들을 문수(663명), 보현(653명) 두 팀으로 편성해 북녘 땅을 밟았으며, 외금강 옥류동 신계사에서 '파라미타 통일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문구류를 북측에 건네는 전달식도 이뤄졌다. 이 밖에 캠프기간 동안 백담사, 건

봉사 등의 사찰순례, 통일 백일장 및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 등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파라미타는 7월 28일 조계사 신도교육관에서 4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속의 한국 문화탐방' 발대식을 가졌다. '역사 바로알기운동'의 일환으로 2005년 서울특별시 청소년프로그램에 선정된 이번 문화탐방은 8월 6~11일까지 진행되며,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등을 방문해 일본 속의 한국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다.

이은비 기자

한국·대만 불교발전 '악수'

종무·유학승 교류, 상원 스님 신계사초청 등 합의

조계종 법장 스님 등 대만 방문단 '성공'

한국과 대만불교가 양국 불교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에 합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대만 방문단은 7월 21일 포광산(佛光山) 상원(星雲) 스님과 그의 좌담회에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을 대만 포광산스님 주무 연구 프로그램에 파견시켜 교육을 받게 한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대만 포광산스님 불족단이 공식 참여한다 △대만 포광산스님 불자들을 한국 사찰 템플스테이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 △양국 젊은 학인들의 유학 교류를 지원한다 △상원 스님 등 포광산스님 대중 30여명을 금강산 신계사에 초청한다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포광산스의 현대식 운영법을 본받아 불교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대만불교와 한국불교가 자리잡힌 것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천수이벤 총통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갈등 관계에 있는 곳에 '훌륭한 교류'를 하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법장 스님은 "대만정부에서 대만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중국불교'를 새롭게 해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공동취재단

'통플스테이' 예산문제로 '발 동동'

참가비 외 재정지원 없어 준비에 차질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대한불교청년회가 108명의 청년·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8월 13~16일 금강산 건봉사와 신계사 일원에서 개최할 '통일 주제 템플스테이'(통플스테이)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되지만, 참가비 외에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정우식 통플스테이 준비위원장

은 "청년 학생 불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60만원 가까운 참가비를 절반으로 줄였다니 재정 공백이 커졌다"며 "남북통일을 발원하는 역사적인 행사인 만큼 관심 있는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문의: 010-2800-1281 정우식 준비위원장 후원 국민은행 023501-04-052395 정우식(통플스테이) 유철주 기자

"10·27 법난 규명에 종단 나서야"

대책위, 법장 스님에 건의

10·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27법난 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법다, 이하 법난대책위)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법난대책위 공동대표 진관, 도선사 회주 혜성,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 삼보, 수일 팔담사 주지 성해 스님 등은 7월 28일 법장 스님을 예방해 △법난 진상규명 촉구 △법난 입안자와 명랑사, 시행자 규명 △전국사찰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 자료 조사 등을 건의했다. 법난대책위는 이와 함께 △법난이 국방부 과거사 진상 규명위 의제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입장 확인 △국방부 과거사위 위원에 불교계 인사가 배제된 이유 규명 △법난 25주년을 기념한 행사 마련 등을 부탁했다. 법난 대책위는 건의문을 전달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철주 기자

조계종 종무원노조 설립 신청

총무원·본사주지 등 '반대' 입장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종무원 26명이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노조활동 단체승인 신청서'를 7월 19일 종로구청에 접수시켰다. 하지만 총무원 집행부는 △교단 내 정치활동을 위한 노조설립 △하위직급 종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차과장 다수 참여 △불교신분과 복수노조 등을 이유로 20일 종로구청에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이의 제기의 건'을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임원진은 △노조 정규

실현 강령에 '정치적 중립 견지' 삽입 △차과장급 실질적 인사권 평가권 부재 △불교신분과 인사, 급여 노무 체계가 다른 사업장 등을 근거로 집행부의 지적을 일축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29일 현재 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일반직 종무원들의 모인원 원우회(회장 양진수)는 19일 "우선 '종무원조합'을 함께 결성하고 '종무원의회'를 통해서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착실하게 반영시켜 나가면서 이를 종법상으로 보장받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26일 대전 유성에서 연합회 회의를 열고 "종교단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종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조계종, 팀제 도입 등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직책 및 직급이 단일화되고 능력형 보직제도가 운영된다. 종무원정단위로 '팀'제가 도입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은 증가하지만, 각 급별 정년을 초과할 경우 승호 및 승급 기회를 제한 당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7월 25일 열린 종무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존 직책(5종)과 직급(6급)의 이원적 관리체계에서 1급에서 7급까지의 단일 직급 체계가 도입된다. 또 총무원 등에 약 33개의 팀이 구성되며, 4년 이상 근무하면 사원에

서 팀장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제도가 연봉제에서 호봉제+성급제로 전환되고, 종무원 안거 휴직과 명예퇴직이 신설된다. 남동우 기자

스리랑카 노동자위해

불교문화체험 마당

조계종 총무원은 스리랑카 노동자 100여명을 초청해 평창 월정사와 양양 낙산사 등을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8월 14~15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안산 마하보디사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와차사라 스님이 스리랑카 노동자들과 함께 동해 삼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02)2011-1830 유철주 기자

본지 536호 3면 '부처님 가르침 영어로 배우' 기사 중 '현각 스님의 영어회화 강좌'를 '현각 스님의 영어 금강경 법회'로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창종공고 社團法人 大韓佛敎 三界宗

창종 설립취지문

종생은 누구나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연기로 이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자비행을 끊임없이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대한불교 삼계종은 다양한 종교, 정치체제, 민족간의 갈등을 초월한 불성중심의 화해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승가와 재가 구분 없이 사회복지, 문화사업, 사회봉사단체 후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는바 이제 질적 양적으로 확대된 단체를 비영리 법인화함으로써 감독관청의 감독하에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 땅의 불교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을 창종 선포합니다.

宗旨

1. 자각각타(自覺覺他)
2. 각행원만(覺行圓滿)
3. 견성성불(見性成佛)
4. 전법도생(傳法度生)

입종공고

본 삼계종의 종지를 근본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불교도 건설에 뜻을 같이하고자 하시는 사찰, 스님, 포교사, 각지역 불교지도자들께서는 언제든지 등록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를 총무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총본산

● 주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1리 산 9-2 연화사
 TEL 031)988-3531 / FAX 031)988-1979

총무원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12-4호 자원사
 TEL 032)529-5191 / FAX 032)529-6709

종정서허 석법수

총무원장 일초 박치훈

※ 종단 주요 임원 스님들 및 각 지역 총무원장 스님들 존명은 본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및 게시합니다.
<http://www.samgyeojong.org>

삼계산하단체

- (사)인해전통문화예술원
- 인해국악관현악단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보존회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교
- 문화관광부 인가 전통예술신문사